

투데이 칼럼

스피치 시작의 멘트

스피치를 시작할 때 청중의 마음을 가장 쉽게 여는 방법은 무엇일까? 스피치 시작의 역할은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하는데 여기서 스피치를 시작하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다.

첫째는 칭찬이다. 칭찬은 청중(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진심어린 구체적인 칭찬을 통해 청중과 친해지고 교감을 얻을 수 있다. 칭찬은 청중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살맛나게 하는 것이다. 회사원들에게는 하는 일과 제품의 좋은 점도 칭찬하고 직접 칭찬이나 간접칭찬도 효과가 좋다. 개인으로도 상대의 능력, 웃치림, 특징 등이다. '미소가 예쁜', '안경 쓰신 지적인' 같은 말로 칭찬하면 호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둘째, 공감이다. 공감멘트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가? 방법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것으로 상대의 고민, 아픔, 문제인지 등의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 일이 불안하구나", "나도 걱



김양욱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정된다는 말로 공감은 상대방을 비취주는 거울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감정을 좌우하는 일상의 사건들을 찾아보고 만일 나라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 안에 고민과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공감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기쁨' 보다 '슬픔'을 '성공'보다 '실패'를 말할 때 더욱 공감을 할 수 있다. 셋째, 유머이다. 유머는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주의를 집중시키고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유머는 반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듯이 유머는 반전의 연속성을 갖고 있다. '권하게 말하라. 비유를 사용하라. 풍자를 말하라.' 라고 말하였다. 넷째, 전문용어이다.

스피치 할 때 주제와 관련된 전문 용어를 말하면 전문가의 인상을 심어줘 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청중에게 생소한 단어의 주제라면 스피치(강의) 앞부분에 그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다. 이렇게 할 때 호감을 갖고 상호소통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야기를 이해하고 같이 호흡하는 것이다. 다섯째, 질문이다. 잡담하듯 편안하게 청중과 대화를 나누며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 소통하는데 도움이 된다. 질문은 순식간에 그 스피치에 몰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질문은 내용을 쉽게 해서 공감하고 또는 어려운 질문으로 청중이 생각하는 여유를 주는 기법도 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의 저자 사이먼 사이넥이 강의할 때 약 2분간 질문을 계속 던지며 청중이 몰입하자 자신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를 전한다고 한다. 여섯째, 이미지 또는 키워드이다. 이미지를 사용하면 청중들을 상상하게 하고 주제에 몰입하게 만든다. 가급적이면 한페이지에 하나의 이미지 또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다. 일곱째, 충격이다. 충격기법은 주제에 대해 짧은 시간에 몰입을 시키는 무기다.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을 때 그것으로 스피치가 끝나면 안되고 도입부에 발언을 했다면 본문에서 해결책 등을 말해주어야 한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이끄는 좋은 방법으로 본다. 여덟째, 퍼포먼스이다. 스피치의 시작은 꼭 정답은 없다. 호기심을 유발하고 주제에 집중할 수 있다면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퍼포먼스도 좋은 기법이 된다. 마술사는 스피치 할 때 마술을 보이고 개그맨 정종철은 비트박스를 하며 스피치를 시작한다. 시 낭송하고 노래 부르고 시작하는 강사들도 있다. 위의 여덟 가지 스피치 시작하는 기법들을 알아보았지만 이외에도 창의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스피치 실행의 기법에서 첫 마디, 첫 문장, 첫 단락을 인상 깊게 하여야 한다. 관심을 확보하면 성공할 수 있다.

사설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최근 배터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성일하이텍, 포스코, 예코프로 등 국내 주요 기업들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거나 검토 중에 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정은 배터리를 제조에 사용된 핵심 광물인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구리 등을 추출해 회수하는 습식제련 방식의 추출 공정이 필수적이다. 해당 공정에는 광물들을 추출해내는 '추출제'와 더불어 '탈방용제' 역시 용매이자 희석제로써 필수로 사용된다. 이 수스페셜티케미칼은 산업용 용매인 탈방용제(D-Sol)를 약 30년간 생산해온 기업이다. 급속가공용, 세탁 용제 및 잉크 등 다양한 산업군에 D-Sol

을 공급해 왔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희석제 시장 선점을 위해 'ISU REX 110'이라는 신규 브랜드를 론칭했다. 지난해 10월 국내 추출제 제조업체인 이에이포스(EAPHOS)와 업무 협약식을 맺고 추출제와 희석제 패키지 판매를 추진 중에 있다. 국내 최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S사의 기존 공장 공급에 이어 6월 가동 예정인 신규 공장에 1000톤 이상의 대규모 희석제 공급을 완료했다. 또 국내외 주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들과 희석제 공급을 위한 기술 협의 등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법(CRMA) 등에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기업들이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대규모 공급을 기반으로 향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희석제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바란다.

총선 여성 당선인 60명

지난 4·10 총선에서 여성 당선인은 6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당선인들의 평균연령은 56.3세였다. 초선 의원은 전체 당선인의 절반에 조금 못 미쳤다. 최고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의원으로 1942년생 81세다. 최연소 당선인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으로 1991년생 32세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전용기 의원은 이번 총선 지역구에서 당선돼 최연소 지역구 의원이 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은 15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60대 100명(33.3%), 40대 30명(10.0%), 30대 14명(4.7%), 70대 5명(1.7%), 80대 1명(0.3%) 순이다. 20대 당선인은 없다. 30대 당선인 14명 중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소속이 5명, 민주당과 민주연합 소속이 7명이다. 나머지 2명은 개혁신당의 이준석·천하람 당선인

이다. 최다선인 6선은 총 4명(1.3%)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주호영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조정식 의원이 최다선이다. 또 3선은 47명(15.7%), 4선은 24명(8.0%), 5선은 13명(4.3%)이다. 재선 의원은 77명(25.7%)이다. 비례대표 의원 중에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더불어민주당 연합 용혜인 의원이 나란히 비례 재선이 됐다. 초선 의원은 비례대표 44명을 포함해 총 135명(45.0%)으로 가장 많았다. 21대 총선 당시 155명과 비교하면 초선 의원 수가 줄었다. 당선인 300명 중 여성은 역대 최다인 60명(20%), 남성은 240명(80%)이다. 기존에 가장 많은 여성 당선인이 나온 총선은 지난 21대 총선의 57명이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중국 대입 '가오카오' 시작, 선생님 응원 받는 수험생



중국의 대학입시 '가오카오'가 시작된 지난 7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한 수험생이 교사들에게 들어가기 전 선생님으로부터 응원의 포옹을 받고 있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의 2024 국가대학 입학시험에 등록한 학생은 1,34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명 늘어난 역대 최다 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 부족 항의하는 아르헨티나 반정부 시위대



지난 6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무료 급식소의 식량 부족에 항의하며 정부에 식량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